# 金應瑞를 기억하는 방식과 그 문학적 형상화

강창규*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임진왜란에서의 金應瑞에 대한 기억
Ⅲ. 金應瑞에 대한 추증의 과정
Ⅳ.『壬辰錄』에서의 金應瑞
Ⅴ. 결론

**| 국문초록 |**

임진왜란과 요동 深河전투에서 활약한 金應瑞는 다양한 기억이 공존하고 있는 인물이다.『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임진왜란에서 降倭 유치와 관련된 전공이 많은 그는 조정에서 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고, 그가 최대 활약상을 보인 평양성전투에 대해서 평양지역 기록에서는 계월향의 도움으로 적장을 죽인 인물로, 柳成龍의『징비록』에서는 적군이 도망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물로 나온다.『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그에 대한 기억을 남긴 여러 텍스트에서 서로 엇갈린 기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광해군 시기에 明의 요청으로 요동에서 後金과 전투를 벌인 김응서는 姜弘立과 함께 투항하게 된다. 투항 후 실록에 따르면, 그가 병사하였다 하기도 하고, 끝까지 충절을 잃지 않고 적정을 탐지하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충절을 잃지 않고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마지막까지 고국에 정탐기록을 보내다 죽은 죽음은 평양쪽 기록들에 의해 점차 강화되게 된다. 이렇게 충절의 이미지로 강화된 그의 기억은 임진왜란을 기억하고 있는 문학작품인 『임진록』에도 영향을 미쳐, 심하전투에서 후금을 정벌하러 가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왜를 정벌하러 간다. 후금과의 전투에서의 기억이 거슬러 올라가 임진왜란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의 충절의 이미지는 고스란히 유지되며 서사화된다. 강화된 기억이 문학적 텍스트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기억은 더욱 확산되고 강화되어 우리의 기억 속에 고착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응서에 대한 이와 같은 엇갈린 기억들과 그 서사, 문학적 변모들은 그에 대한 다양한 기억이 어느 한 지점으로 귀결되고 다시 그것이 문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실에 대한 기억들과 기억의 서사, 기억의 문학적 형상화의 측면에서 흥미로운 시선을 제공해주고 있다.

주제어 : 임진왜란, 기억, 김응서, 강홍립, 계월향, 징비록, 임진록

## Ⅰ. 머리말

金應瑞(1564~1624)는 金景瑞의 初名으로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장수이다. 평양성 전투에서 계월향의 도움을 받아 왜장 소서비의 목을 벤 장수로 잘 알려져 있으며 1618년 명청 교체의 일대 분기점이 된 요동 深河의 富車 전투에서 강홍립과 함께 후금에 투항한 장수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일제 식민지시대 때 유명한 일본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1892~1927)는 「金將軍」이라는 소설을 지어 『新小說』 2월호(1924)에 발표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진 인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김응서에 대한 연구는 계월향과 김응서이야기가 『壬辰錄』에서 어떻게 변주하고 있는 가에 대한 연구[1]가 있을 뿐이고, 김응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김응서라는 장군을 기억의 문제와 결부시켜 다

룰 것이다.[2] 기억의 문제는 사뭇 흥미롭다. 사실 기억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기억을 다룰 때 생각해볼 점들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당시에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는 가', 둘째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들이 어디로 귀속되는 가', 셋째 '기억들이 문학적 텍스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유념해야 할 점들을 생각해보면서 당대의 기억과 기억의 서사와 기억의 문학적 형상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기록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 기억이 생산되게 되는데, 이러한 기억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 이유든, 기억의 근원적 불완전성 때문이든 하나의 지점으로 귀속되게 된다. 높은 절개와 충절의 이미지로 부각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음란하고 패역적인 인물로 기억이 강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이 여러 문학적 텍스트에서 형상화되면서 기억들은 더욱 공고해지며 파급효과 또한 커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응서에 대한 기억들을 다룰 때에도 그를 둘러싼 기억들이 왜 이런 기억이 되었는가를 유념하면서, 그 기억들이 시간이라는 여과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기억들만이 살아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이 문학적 텍스트로는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살펴본다면, 기억의 형성과정과 문학적 형상화의 면모들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현대의 정리되어진 기록에서 기억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자.

---

1) 임철호, 「계월향이야기의 변이와 의미 」, 『모악어문학』, 제1권,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6, 49~60쪽; 정지영, 「논개와 계월향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기 : 조선시대 의기의 탄생과 배제된 기억들」, 『한국여성학』 23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7; 이동월, 「계월향이야기와 죽음의 변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16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8.

2) 임진왜란을 기억의 문제와 결부시켜 다룬 논의는 정지영, 「임진왜란과 '기생'의 기억」, 『임진왜란 :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정출헌, 「임진왜란의 영웅을 기억하는 두 개의 방식-사실의 기억, 또는 기억의 서사」, 『한문학보』 21집, 우리한문학회, 2009; 정출헌, 「탄금대 전투에 대한 기억과 두 편의 <달천몽유록>」, 『고소설 연구』 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등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1618년, 임진왜란 이후 세력이 강성해진 建州衛의 후금 정벌을 위해 명나라의 원병 요청이 있자, 김응서는 평안도병마절도사로 부원수가 되어 원수 姜弘立과 함께 출전하였다. 이듬해 深河지방에서 전공을 세웠으나 薩爾滸의 전투에서 명나라 군사가 대패하고 선천군수 金應河, 운산군수 李繼宗 등이 전사하자 강홍립과 함께 적진에 통하여 출병의 부득이함을 말하고 잔여병과 함께 후금에 투항하였다. 포로가 된 뒤 비밀리에 적정을 탐지한 기록을 고국에 보내려 했으나 강홍립의 고발로 탄로나서 처형되었다. 우의정에 추증되고 향리에 정문이 세워졌다.[3)]

임진왜란 이후 명을 도와 후금을 정벌하기 위해 참전했던 김응서는 투항은 했으나 끝까지 충절을 잃지 않았고 적정을 탐지하려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인물로 현대에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여기서 이러한 현대의 기억이 발생되어진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임진란에서 그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임진란 이후에 그가 기억되는 모습을 살펴본 다음, 다시 임진란 이후 임진란을 문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임진록』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응서에 대한 임진왜란 시기의 기억들과 그 이후 추증의 과정들, 그리고 문학적 텍스트인 『임진록』에서 김응서가 어떻게 기억되고 그려지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인물이 상황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기억되는 지 살펴볼 것이며 후대의 기억이 전대를 그리는 텍스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김응서의 초기 기억부터 점검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2장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김응서에 대한 기억을 점검해 보고, 3장에서는 후금과의 전투 후 기억이 존승되는 과정을 살피겠다. 4장에서는 이러한 기억이 임진왜란을 기억하고 있는 문학텍스트인 『임진록』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지 살펴보아 후금에서의

3)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용.

기억이 임진왜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임진왜란에서의 김응서의 모습과 그 이후 기억의 존승과정과 포상과정, 그리고『임진록』에서 김응서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변주하고 기억의 서사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Ⅱ. 임진왜란에서의 金應瑞에 대한 기억

참혹한 전쟁 임진왜란. 역사적 대사건을 겪다보면 무수한 기억들이 탄생되기 마련이다. 영웅과 배신자, 기생의 절개와 사랑, 기구한 운명들과 그 속의 고난과 슬픔들. 그리고 후대에 이를 다시 기억하기까지. 임진왜란과 같이 오랜 기간 전쟁을 하다보면 그에 대한 무수한 이야깃거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점에서 김응서 역시 무수한 기억을 안고 있는 인물이다. 우선 김응서와 관련된 실록기록을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다르다.

> [1]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양의 왜적은 선봉인 정예병입니다. 그들의 首級 하나를 얻는 것은 다른 왜적의 수급 열 개를 얻는 것에 해당되니 마땅히 서둘러 論賞해야 합니다. (중략) 또 金應瑞는 起復從軍하여 항상 앞장서서 많은 軍功을 세웠고 이제 또 적의 수급 10여 급을 베었으니 특별히 논상하여야 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 말에 따라 이일과 김응서에게 加資하도록 명하였다.[4]

> [2]慶尙右兵使 金應瑞는 비록 돌격의 용맹은 있으나 별로 변란을 제어할 만한 智略이 없으니 진실로 統禦의 인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起復 중에 있는 몸으로서 가는 곳마다 娼妓를 가까이하여 꺼리는 바가 조금도 없으므로 음란하고 悖逆스런 행실을 사람들이 모두 침을

4)『선조실록』 선조 25년(1592) 9월 4일.

뱉고 더럽게 여기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士卒들을 畏服시키고 한 방면을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급한 때를 당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결코 推轂의 重任을 맡길 수는 없으니 改差를 명하소서.5)

사헌부가 와서 아뢰기를, "내수사 전세를 호조에서 옮겨 받게 하소서.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는 사람됨이 패려 경망하고 일 처리도 잘못하여 우리 군사 중 죄지은 자를 항복한 왜인을 시켜 죽이게 하고 죄지은 자의 아내를 항복한 왜인을 시켜 통간하게 하는 등, 모든 하는 일이 걸핏하면 인심을 잃으니 후일에 일을 그르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본도의 장수들과도 화합치 못하여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않으니 마음을 같이하여 적을 토벌하지 못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식지계로 양측을 다 두어 후회를 끼치게 할 수 없으니 改差하소서.6)

[1]은 김응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고, [2]는 김응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부모의 상중에 기복종군하여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던 김응서에게 [1]에서는 상을 주어야 한다고 하며, [2]에서는 기복 중 창기와 가까이하는 패려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이외의 실록에서 김응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선조 26년(1593) 2월 5일에 비변사에서 김응서를 '전쟁을 잘하는 용맹한 장수라고 평'하거나, 선조 26년(1593) 2월 27일에는 '三縣이 보존된 것은 모두 김응서의 공'이라고 그를 칭찬하기도 한다. 하지만 [2]와 관련된 김응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부분은 선조 32년(1599) 9월 6일에 기생과 놀아났다는 사신의 평이 실려 있고, 선조 36년(1603) 7월 3일에는 녹훈할 때 뇌물을 바치느라 병영이 텅 비었다는 말이 원근에 파다하게 퍼졌다는 기사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광해군 1년(1608) 7월 2일에는 탐욕과 교활한 것을 들어 파직을 청하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한다. 이를 통해 살펴볼

5) 『선조실록』 선조 26년(1593) 7월 21일.
6) 『선조실록』 선조 27년(1594) 8월 21일.

때, 그의 전투에 관한 공적에 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는 반면,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응서는 임진왜란 시기동안 降倭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그들을 활용해 전투에 참전시키거나 기술직 장인으로 활용하였다. 그는 항복한 왜군을 다루는 데에 능숙하여 여기에 대한 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 비망기로 김신원에게 전교하였다. 전일 투항한 왜병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불평하는 말도 많았는데 나만이 그렇지 않다고 밝히면서 많은 인원을 끌어내려 하였으나 군신들의 지지를 받아 끝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 항왜들이 먼저 성위로 올라가 역전하여 적병을 많이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몸이 부상당해도 돌아보지도 않고 있으니, 이는 항왜들만이 충성을 제대로 바치고 있는 셈이다. 과연 廟堂에서 하는 말처럼 적과 내응하고 적을 끌어들였는가. 적병을 죽였거나 역전한 항왜는 모두 당상으로 승직시키고 그 다음은 銀으로 시상할 일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라.[7]

> 김응서의 진중에 있는 왜인들이 전후로 힘껏 싸워 적의 머리를 벤 것이 매우 많았고 죽고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후회함이 없었다고 하니 박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의리를 향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대한 소견이 없기 때문에 늘 降倭는 쓸 수 없다고 하므로 저들은 의구심이 생겨 힘껏 싸우지 않게 되니 참으로 부당합니다.[8]

선조는 항왜의 전공을 들어 더 많은 항왜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문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들에게 포상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에는 왕과 무신들이

7) 『선조실록』 선조 30년(1597) 8월.
8) 『선조실록』, 선조 30년(1597) 10월 15일.

降倭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며 항왜를 수용하여 군사나 기술직장인으로 활용한다.[9] 이러한 맥락에서 김응서 또한 상당수의 왜인들을 수용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왜의 수용이라는 측면은 다분히 위험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실 항복한 왜인들을 믿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조정에서 항상 문제일 수 있었다. 따라서 김응서의 항왜의 수용에 대한 공에 있어서도 항상 시빗거리가 존재했는데, 실록 곳곳에서는 이러한 항왜의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 김응서의 계본에 있는 항복한 왜인의 招辭를 보면 그 실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탈출해 온 왜인은 모두가 30세 이전의 연소한 왜인으로, 적의 형세를 말한 것도 심히 장황합니다. (중략) 또 그의 진중에서 죄를 짓고 도피해 온 것이라면 반드시 지닌 器物이 있을 것인데 만일 몸만 탈출해 왔다고 한다면 거짓으로 투항했을 듯싶습니다. 김응서는 그들을 군중에 머물려 두었다가 적중에 보내어 군량에 불을 지르거나 장수를 살해하게 하려 한다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약 이들이 反間을 행하는 왜인이라면 아군이 이로 인해 간악한 계책에 빠질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10]

항왜의 수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임과 동시에 反間하는 倭人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왜인이라는 민족적 이질감은 당연히 그들에 대한 신중함과 경계심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항왜와 관련하여 공이 많았던 사람이 김응서이기에 그에 대한 공적은 논란거리일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성룡의 『징비록』에서는 김응서와 관계가 깊은 倭人 要時羅에 대한 비판이 보인다.

> 적의 장수 평행장이 졸병 要時羅를 경상 우병사 김응서의 진영에

9) 항왜의 수용과 처리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장희, 「항왜의 수용」, 『임진왜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99 참조.
10) 『선조실록』 선조 27년(1594) 2월 25일.

> 자주 드나들도록 해서 은근한 정을 보였는데, 이때 가등청정이 다시 나오려고 하자 요시라는 은밀히 김응서에게 "우리의 장수 평행장의 말이, '이번 화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가등청정 때문이므로 나(평행장)는 그를 매우 미워하고 있는데, 아무 날에 가등청정이 반드시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 조선 군사는 수전을 잘하므로 바다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으면 능히 쳐부숴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결단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합디다"라고 했고, 김응서가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자 조정 의론은 이 말을 믿었다. 海平君 윤근수는 더욱 좋아라고 날뛰면서 이 기회를 놓치기가 아깝다 하여 여러 번 임금께 아뢰어 이순신에게 나가 싸우라고 잇달아 재촉했으나, 이순신은 적군의 간계가 있을까 의심하여 여러 날 동안 주저하면서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 요시라가 다시 와서 "가등청정이 벌써 상륙해버렸습니다. 조선에서는 어째서 요격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후회하고 애석히 여기는 뜻을 보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조정 의론은 모두 이순신에게 허물을 돌리고, 臺諫에서는 이순신을 잡아와 국문하기를 청했다.[11]

요시라의 간계에 의해 이순신이 서울로 압송되게 되는 장면이다. 김응서가 왜군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요시라를 통해 거짓정보를 흘리고 이를 통해 이순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속담에 '요시라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시라의 이간공작은 유명한데, 그 요시라와 주로 연락을 받은 사람이 김응서였다. 이러한 식으로 앞서 김응서가 임진왜란에서 항왜와 관련되어 세운 공적은 실록에서는 훌륭하다고 언급한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비판이 이어지는 것이다.

김응서와 관련된 또 다른 공적 중에 하나는 평양성 전투에서 계월향의 도움을 통해 적장 소서비의 목을 베는 장면일 것이다. 많은 평양성 전투를 기억하는 기록들을 보면, 실제로 김응서는 평양성 전투에

11) 유성룡, 『징비록』, 이재호 역, 역사의 아침, 2007, 286쪽.

참전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성 전투를 기억하는 평양 기록들을 보자.

> [1]밤중에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계월향이 응서를 인도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가니 왜장이 걸상에 앉아서 자는데 두 눈을 부릅뜬 채 雙劍을 쥐고 얼굴을 벌겋게 해가지고 마치 사람을 내리칠 것 같았다. 응서가 칼을 빼어 왜장을 베니 머리는 벌써 땅에 떨어졌는데도 칼을 던져 하나는 벽에 꽂히고 하나는 기둥에 꽂혀 칼날이 반이나 들어갔다. 응서가 왜장의 머리를 가지고 문을 뛰쳐나오니 계월향이 뒤를 따랐다. 응서가 둘 다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을 짐작하고 칼을 휘둘러 베고 한 몸으로 성을 넘어왔다. 이튿날 새벽에 적이 그 장수의 죽음을 알고 크게 놀라 소란을 피우며 사기를 잃었다[12]

> [2]적장 소시비는 효용이 절륜하고 잠을 잘 때도 두 눈을 뜨고 잤으며 손에는 보검을 쥐고 있어 아무도 가까이 가질 못했다. 공이 부에서 소시비에게 사랑받고 있는 기생을 이용하여 그가 진짜 자는가를 알아내고, 밤에 장막을 거두고 곧장 달려 들어가 그를 베어 그 머리를 잡아들었다. 이때 서남쪽의 병졸들이 모두 잠자고 있었는데, 기생이 옷소매를 부여잡고 함께 도망가고자 했다. 공이 두려움을 느껴 한 칼로 기생을 베고, 성을 뛰어 넘었다.[13]

왜장 소서비의 무시무시함과 함께 왜장의 목을 베는 김응서의 활약상이 보인다. [1]은 가장 초기의 기록이라 보이는『평양지』의 모습이고 [2]는 평양도 관찰사를 역임했던 蔡濟恭(1720~1799)의 기록이다.[14] 이

12)『평양지』의 이 부분은 이긍익의『연려실기술』권15에 실려있다.

13) 蔡濟恭,『樊巖先生集』권47, <金公神道碑銘> "賊酋小西飛, 驍勇絶倫, 睡熟兩眼輒開, 手猶握寶刀, 人莫敢近前. 公因府妓之嬖於飛者, 知其爲眞睡, 夜披帷直入劒斬之, 提其首出. 時西南隅卒卒皆睡, 妓挽衣欲與偕. 公恐有覺, 一劒又斬妓跳出城."

14) 이러한 기록들은 김응서보다는 계월향을 높이고 알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김응서 역시 무용이 뛰어난 장수로 그려진다. 평양지역 관찰사들과 유림들의 기록에서 유독 김응서와 계월향의 활약상이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것은 그 지역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지방 사족들의 의도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접근은 박노자,「의기 논개 전승-전쟁, 도덕, 여성」,『열상고전연구』25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평양감사를 지냈던 洪良浩(1724~1802), 韓章錫(1832~1894)의 기록과 평안도 관찰사였던 閔鎭遠(1664-1736) 역시 김응서의 遺事를 엮어 세상에 전한 바 있다.[15] 이와 같이 평양지역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계월향과 함께 김응서의 활약상을 부각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활약을 한 김응서의 기억들은 유성룡의 기억과는 사뭇 다르다.

> 이일의 순변사 직책을 갈고 다시 이빈이 이를 대신하도록 했다. 평양 싸움에 명나라 군사는 보통문으로 들어가고, 이일과 김응서 등은 함구문으로 들어갔다. 군사를 거두어 모두 물러 나와서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던 차에, 밤중에 적군은 도망쳐 가버렸으나 이튿날 아침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제독은 우리 군사가 경비하여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군이 도망쳐 가도 몰랐다고 허물을 우리에게 돌렸다.[16]

김응서가 최대의 활약상을 보이는 평양성 전투에서 김응서는 왜적이 밤중에 도망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징비록』의 기록들은 유성룡이라는 한 개인의 의식이 투영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징비록』이란 書名은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予其懲而毖後患:『詩經』, 「小毖」)"라는 뜻으로 그의 집필목적을 알 수 있다. 좌의정·병조판서·도체찰사·영의정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유성룡은 7년간의 임진왜란의 다양한 기록들을 접했을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기록들을 선발하여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유성룡은 부산진 전투, 탄금대 전투 등 임진왜란 초기 전투의 상황을 너무나도 맥없는 패배의 연속으로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을 돋보이게

15) 洪良浩, <副元師金將軍景瑞傳>; 韓章錫, 『眉由先生文集』권9, <金襄毅公遺事續錄跋>; 閔鎭遠의 글은 실록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영조실록』 영조51년(1775), 6월 11일. "臣曾聞仁廟改王後, 特伸金景瑞之冤, 侈以議政之贈, 故相臣閔鎭遠有所撰文字, 詳載事實, 至許以精忠義烈, 其言信而有徵, 故日前儒疏之登徹也, 臣果以所聞見者, 有所仰對."

16) 유성룡, 앞의 책, 219쪽.

만들기 위한 복선이다.[17] 이러한 점에서 평양성 전투에서 김응서를 무능력하게 그린 것도 이해가 된다. 또한 첩자 요시라의 첩보에 의해 이순신이 파직된다는 점에서 그 전달을 하고 있는 김응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유념해할 점이 있다. 실록의 기억들은 당대의 기억이고,[18] 평양지역 기록들과 『징비록』의 기억은 후대의 기억이라는 점이다.[19] 즉, 실록의 기록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당대의 혼란한 상황을 반증하기도 하며, 김응서의 전공이 주로 항왜를 다루는 것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평양의 기록들과 『징비록』이 다른 이유는 지은 작가들의 욕망의 형태가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초기의 전투를 맥없이 그리고, 자신이 등용한 이순신의 모습을 영웅적으로 서술하는 모습처럼 평양지역의 기록들 역시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기억 역시 유성룡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재구해낸 기록물들이다. 평양지역의 기억들이 김응서를 충절과 영웅으로 그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 Ⅲ. 金應瑞에 대한 추증의 과정

한 지역의 인물이 그 지역의 사족들과 관찰사들에 의해 기억이 부

17) 이에 대해 정출헌은 『징비록』을 '사실의 기억'을 넘어서서 유성룡이 재구한 '기억의 서사'라 칭하고 있다. 정출헌, 「임진왜란의 영웅을 기억하는 두 개의 방식-사실의 기억, 또는 기억의 서사」, 『한문학보』21집, 우리한문학회, 2009.

18) 선조실록은 서인과 북인의 손에 의해 번갈아 수정되었기에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사실의 기억이며 당대의 기억인지 문제를 가지게 된다. 또한 실록의 기사는 이미 평가가치가 들어간 보고를 바탕으로 쓰여진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광해군일기 중초본과 광해군일기 정초본에 모두 김응서에 관련된 기억들이 혼재해 있다. 곧 기억의 초기는 다양한 평가의 집적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중 소수의 기억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억이론은 실체적 진실위에서 심증적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재한 기억들 속에서 진실은 그 즈음에 가려진채 특정기억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19) 유성룡의 『징비록』은 선조 31년(1598) 북인에게 밀려 삭탈관직 당한 뒤 낙향해 은거해 있던 선조 37년(1604)에 지어졌다.

풀려지고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논개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논개는 실세한 진주지역의 지방사족들이 자기 지역의 지위를 높이고 지역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쏟은 정치적 욕망의 결과물인 것이다.[20] 김응서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김응서에게 죽임을 당했던 계월향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곧 평양지역의 유림들과 관찰사들에 의해 김응서와 계월향의 이야기는 부풀려지고 확대 변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응서의 경우 그가 충절과 비운의 영웅으로 기억되게 된 점은 조금 다른 변주가 끼어들게 된다. 그것은 1618년, 임진왜란 이후 세력이 강성해진 후금 정벌을 위해 김응서는 평안도병마절도사로 부원수가 되어 원수 姜弘立과 함께 출전하게 된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논개와 계월향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기억들을 토대로 지역 사족들에 의해 존숭의 과정을 거쳤다면, 김응서는 임진왜란 이후 후금과의 전쟁의 과정에서 기억의 존숭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김응서는 深河지방에서 전공을 세웠으나 薩爾滸의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대패하고 선천군수 金應河, 운산군수 李繼宗 등이 전사하자 강홍립과 함께 후금에 투항하였다. 투항한 것까지는 사실로 여겨진다. 하지만 투항 후 김응서의 행동에 있어서는 실록 초기의 기록과 후기의 평양지역에서 올라온 장계에는 간극이 있다. 먼저 투항 후 초기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자.

> [1]合啓하기를, "(중략) 姜弘立·金景瑞·李民寏과 오랑캐에게 항복한 여러 사람의 가족들을 모두 법전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오랑캐의 편지가 오면 일체 냉엄하게 배척하고서 답서를 보내지 말며, 속히 김언춘의 목을 베어 한편으로는 중국을 섬기는 대의를 밝히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의심을 단절하는 방법으로 삼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마땅히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할테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21]

20) 박노자, 앞의 논문, 238쪽.
21) 『광해군일기』 광해군 11년(1619) 10월 4일.

[2]평안 감사 尹暄이 치계하였다. "定州의 隨營牌 金進이 도망해 와 말하기를, '金景瑞의 부하로 오랑캐에게 투항한 지 8년 만에 지금 비로소 도망하여 왔다.' 하고, 또 그곳 사정을 말하기를, '부원수 김경서는 병사한 지 이미 3년이 되었고, 도원수 姜弘立은 아직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獞女를 주지 않고 漢女를 아내로 주어 아들을 낳았고,韓潤 형제는 姓을 고치고 귀화해서 老汗이 매우 후대하여 胡女를 아내로 주었다.'고 하였습니다."[22]

[1]은 1619년 김응서가 투항한 뒤 조정의 여론이 들끓는 모습이다. 여러 대신들이 함께 김응서의 죄를 극렬히 묻고 있다. 강홍립과 김응서가 후금에 투항하자 광해군11년(1619) 4월 2일자 실록 기록을 시작으로 4월 8일, 5월 1일, 5월 13일, 6월 6일 등 계속해서 강홍립과 김응서에게 죄를 묻고, 그 가솔들을 구금하라는 상소들이 이어진다. 이러한 상소들에 대해 광해군은 계속해서 처벌을 미루는데, 野史에 따르면 상황이 위태로우면 항복하라는 광해군의 밀지를 강홍립이 받았다고 한다.

[2]는 인조반정 후 김응서의 부하가 도망쳐 올린 장계에 김응서는 병사하였고, 강홍립은 漢女와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내용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 김응서가 밀지를 적다가 발각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 투항 후 3년 만에 병사했다고 김응서의 부하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실록의 기록들은 김응서가 그냥 병사한 것이 아니라 적정을 탐지하고 절개를 지키다 죽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1]평안도 幼學 康元立 등이 상소하기를, "기미년 戰役에 金景瑞가 전쟁터에서 죽지는 못했지만 사로잡힌 뒤에도 우리나라를 잊지 못하여 藩胡를 통해 疏本을 전달할 기회를 얻자 적의 정세를 낱낱이 적고 이어 방어할 계책까지 언급하였다가 이것이 오랑캐에게 발각되어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그 소본과 집으로 보낸 편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전하께서 그 절의를 소급하여 표창해 주시면 다행

22)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6월 25일.

이겠습니다." 하였는데, 비국이 아뢰기를, "김경서는 밀(蠟)먹인 종이를 새끼에 섞어 꼬아 오랑캐의 정세를 진달하였다가 이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의 행동은 밉지만 마지막 행한 것을 보면 용서해 줄 만하니, 그의 관작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23]

[2]영의정 申晦가 箚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일찍이 듣건대, 仁廟께서 反正하신 후 특별히 金景瑞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議政의 중직으로 호화롭게 하셨는데, 고 상신 閔鎭遠이 撰述한 문자가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精忠과 義烈을 허락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말이 믿음성이 있어 정거할 바가 있으므로, 일전의 儒疏가 登撤되었을 때, 신은 과연 듣고 본 것을 가지고 우러러 대답한 바가 있었습니다.[24]

[1]의 강원립이라는 인물이 평안도 유생인 점, [2]의 민진원이 평안도 관찰사였던 점들은 우리가 평양 일대의 유림들이 김응서를 복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영조실록』 1775년 6월6일자 기사에도 龍崗유생들이 정려를 내려줄 것을 청하는 기록이 있다.[25] 용강은 평안남도에 위치하는 곳으로 이곳의 유생들이 다함께 김응서의 추증을 바라는 상소를 올리는 것이다. 전란의 상황이란 너무나 복잡하기에, 김응서가 후금에서 그냥 병 사한 것이 진실인지, 평안도 유생 강원립이 주장하듯 적정을 정탐하다 죽임을 당한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정을 탐지하다 죽은 김응서의 죽음은 후대로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기억은 서사화되어 간다.

[1]증 우의정 金景瑞에게 '襄毅'라는 시호를, 증 영의정 趙憲에게 '文烈'이라는 시호를, (중략) 각각 추증하였다.[26]

23) 『인조실록』 인조8년(1630) 2월 16일.
24) 『영조실록』 영조 51년(1775) 6월 11일.
25) 『영조실록』 영조 51년 (1775) 6월 6일.

[2]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하였다. 大護軍 鄭元容이 아뢰기를, "贈 右議政 襄毅公 金景瑞는 임진년·계사년에 島夷의 變을 당하자 義兵을 규합하여 나라를 위하여 국난에 저항하였습니다. 먼저 平壤의 勝捷에서부터 여러 번 奇功을 세우고 遼東·瀋陽의 戰役에 이르러 마침내는 뛰어난 節操를 이룩하였으므로 명나라에서 箚牌를 내려 특별히 都元帥의 號를 주었고, 宣廟께서 誥旨로 열 번이나 節度使를 제수하였으니, 당일의 委倚의 융성함을 상상할 만합니다. 南北을 지키고 兩京을 능히 회복하였음은 모두 中興功臣과 아름다움을 함께 하고, 6년을 잡혀 있다가 종과 함께 죽었으니 斥和의 烈士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列聖의 褒典이 曠世에 유감됨이 없사오나, 祠宇에 아직 額號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대신에게 下詢하시어 처리하게 하소서."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대신에게 詢問할 필요도 없다."하고, 그대로 따랐다.[27]

인조에서부터 정조, 헌종에 이르기까지의 김응서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점점 더 그의 충절을 기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것은 평안도 유학인 강홍립의 상소와 평안도 관찰사였던 민진원의 글, 용강유생들의 상소에서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응서에 대한 기억과 그 포상의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조 때 우의정 추증된다.

영조 때 정려를 내린다.

정조 20년 4월 8일, 우의정에 증직된 김경서에게 襄毅라는 시호를 내리고 직접 「襄毅公 金景瑞 致祭文」을 짓는다.

---

26)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4월 8일.
27) 『헌종실록』 헌종 1년(1835) 12월 10일.

정조 23년(1799) 2월 30일, 김경서의 후손을 찾아 보고하라는 명을 내린다.

헌종 1년(1853) 12월 10일, 평양성 전투에서부터 여러 번 기이한 공적을 세우고, 요동·심양의 전투에서 뛰어난 절조를 보였으며 6년 동안 잡혀 있다가 종과 함께 죽어 척화의 열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며 祠宇에 額號를 내린다.

이렇듯 김응서는 혁혁한 전쟁의 영웅으로 기억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서사는 한 인물이 영웅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죽음의 진실은 가려진 채, 그가 영웅이 되는 기억들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후금에 잡혀있으면서 끝까지 충절을 잃지 않고 적정을 탐지하다 죽은 김응서의 모습은 북벌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인조반정 이후의 조선사회에 좋은 귀감이 되었을 법하다.

이러한 1618년 후금과의 전투에서부터 이어지던 기억의 서사는 한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것은 다시 임진왜란의 문학적 작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7세기 후금과의 전투에서의 기억이 거슬러 올라가 16세기 말의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제는 임진왜란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가 되어 있는 『임진록』을 통해서 김응서의 기억이 어떻게 문학적 텍스트 내에서 표현되고 있는 지 살펴볼 차례이다.

## Ⅳ. 『壬辰錄』에서의 金應瑞

『임진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실의 패배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당시의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참혹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위안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김덕령의 원통한 죽음과 김응서·강홍립의 왜 정벌, 사명당의 征倭와 왜왕항복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다.

『임진록』의 다양한 이본에서는 김응서의 활약상이 돋보인다. 특히

우리가 평양지역의 기록에서 살펴보았던 계월향과 적장 소서비를 죽이는 장면은 『임진록』후기 계열로 갈수록 그 활약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이여송과 평양성탈환을 위해 전투를 하는 장면에서도 후기계열로 갈수록 무용이 더욱 드러난다.[28]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 결말을 짓는 과정에서 『임진록』의 다양한 이본들은 김응서를 또다시 등장시킨다. 『임진록』이 임진난의 패배에 대한 정신적 승리라고 했을 때, 『임진록』군 계열의 작품들의 결말은 그 당대의 민중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다. 그래서 김덕령의 원통한 죽음을 강조하고 征倭의 이야기들로 결말을 짓는 것이다. 독특하게도 후금을 정벌하러 갔던 강홍립과 김응서는 『임진록』에서 왜를 정벌하러 떠난다.[29]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명이 후금(청)을 토벌하려고 군사들을 동원할 때 임란시 구원병을 보내준 사실을 들어 조선에도 출병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자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김응서를 부원수로 임명해 명을 돕게 하였다. 그 후 강홍립은 정묘호란때 한윤과 더불어 胡軍의 선봉으로 조선에 입국하게 되지만 응서는 함께 사로잡혀있으면서도 몰래 일기를 써 적정을 기록하여 본국에 송치하려다가 강홍립에게 발각되어 처형되었다고 한 것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억인 것이다.[30]

실제로 명을 돕기 위해 후금을 정벌하러 갔던 김응서는 『임진록』에서 왜를 정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변주하여

---

28) 이에 대한 연구는 임철호, 앞의 논문 참조. 이에 따르면 적장 소시비를 죽이는 장면이 후기 계열로 가면서 더욱 소시비의 무시무시함과 김응성의 용맹함이 강화되고 계월향 역시 비중있는 역할로 옮겨지면서 서사화가 뚜렷해진다.

29) 『임진록』의 이본들 가운데 상당수가 김응서·강홍립의 征倭談을 싣고 있다. 征倭談 중 「흑룡일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본들에서 그 이야기전개는 동일하다. 결말부 삽화의 제 양상은 장경남, 「임진록군의 결말 양상과 의미」,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321쪽 참조.

30) 김응서의 죽음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병사했다고 하기도 하고, 오랑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기도 하고, 오랑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강홍립이 누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강홍립이 누설하여 김응서가 죽임을 당한 기록은 『영조실록』 영조 51(1775) 6월6일자 사신의 평이나(史臣曰: 景瑞爲賊臣姜弘立所誑誤, 始雖投降, 而非其意也. 後覺其見欺, 不勝憤恚, 常有得當報國之意. 弘立知其計, 而泄於虜, 景瑞竟爲虜所殺.) 「강로전」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전란의 기억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왜를 정벌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염원이 들어있다고 할 것이다.[31] 그 이야기를 단락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응서와 강홍립이 왜를 정벌하겠다고 임금에게 건의하여 허락을 얻어낸다.
2. 왜 정벌에 나설 때 강홍립이 선봉장이 되고 김응서는 후군장이 된다.
3. 동래에서 승선하려 할 때 3일만 머물렀다가 출전하라는 신인의 계시가 김응서에게 내렸으나 선봉장 강홍립에 의해 거절당하여 할 수 없이 출전하게 된다.
4. 한편 왜왕은 천기를 보고 조선군이 침입해 오는 것을 알고 군사들을 동설령에 매복시키며 3일을 기다렸다가 오지 않으면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5. 강홍립 김응서가 동설령에 이르렀을 때, 김응서는 먼 길을 온 군사들을 쉬게했다가 동설령을 넘자고 하였으나 강홍립이 이를 무시하고 진군하다가 왜의 복병을 만나 전군이 함몰당하고, 강홍립과 김응서 두 장수만 살아남는다.
6. 왜왕이 군사를 보내어 두 장수를 잡아오게 했으나 김응서는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강홍립을 꾸짖고는 혼자 나가 싸워 왜장을 모두 죽인다.
7. 왜왕은 무예로는 두 장수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미인계를 써서 회유하자 김응서는 응하지 않았으나 강홍립이 훼절하므로 할 수없이 응한다.
8. 몇 년이 지나 김응서가 강홍립에게 왜왕을 죽이고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강홍립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왜왕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하고는 왜왕에게 김응서의 계략을 이야기한다.
9. 왜왕이 이을 듣고 노하여 김응서를 잡아다가 질책하자 김응서도

31) 후금과의 전투내용이 『임진록』 결말 부 강홍립·김응서의 倭征에 영향을 준 것은 임철호, 『임진록연구』, 정음사, 1986, 158~172쪽.; 장경남, 앞의 책에서 언급한 바 있다.

왜왕의 무도한 행위를 질책한다. 김응서는 옆에 있던 강홍립을 죽인 다음 왜왕을 죽이려하자 왜왕이 도망하는 바람에 죽이지 못하고 자결한다.

10. 김응서의 말이 김응서의 머리를 물고 본가로 가져다 주니 부인이 이를 임금에게 알린다. 김응서가 임금의 꿈에 나타난 자세한 내력을 알리자, 임금은 김응서의 충절을 칭찬하고 전장에서 죽은 혼을 위로한다.[32]

줄거리를 보면, 후금에 피랍되었던 김응서의 기억들의 변주임을 알 수 있다. 강홍립의 변절자의 이미지와 김응서의 순국자의 이미지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명을 도와 청을 쳤던 사실이 왜의 정벌로, 강홍립에게 죽임을 당한 김응서가 『임진록』에서는 김응서가 강홍립을 죽인다.[33] 왜의 정벌이라는 측면은 민중의 염원이 담긴 목소리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전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기억의 서사화, 곧 김응서의 죽음이 충절의 죽음으로 변주되는 모습과 상통한다. 평양지역의 재지사족들에 의한 기억의 서사화는 결국 『임진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무대는 요동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지만 그 주인공들의 서사방식은 그대로이다. 2.를 보면 후금과의 전투와 마찬가지로 강홍립이 선봉장이 되고, 김응서가 후군장이 되고, 5, 6.에서는 강홍립은 무능한 장수로, 김응서는 뛰어난 장수로 그리고 있으며, 7, 8에서는 강홍립은 변절자의 이미지로, 김응서는 끝까지 충절을 지키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9의 죽음만큼은 김응서가 강홍립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김응서가 강홍립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역사적 변주를 통해 정왜담을 구성하였지만 문학을 통해서 충절의 김응서가 변절자 강홍립을 죽임으로써 『임진록』저자의 의식세계가 투영되었

32) 장경남, 앞의 책, 328쪽을 단락별로 정리.

33) 다만 「흑룡일기」에서는 김응서가 선봉장, 강홍립이 후군장이 되며, 김응서를 무능한 무장으로 그리고 있으며, 강홍립이 김응서를 죽인다. 이 역시 강홍립과 김응서에 대한 평가가 다양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임진록』에서 강홍립을 부정적인 인물로 서술하고, 김응서를 긍정적으로 서술함은 여러 기억들이 이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다.

다고 볼 수 있다.

임진왜란이 지나고, 다시 후금과의 전투가 지난 뒤 평양 재지사족들에 의한 기억의 서사화는 다시 『임진록』의 결말부에 영향을 미쳐 강홍립은 일본에 투항하여 배신을 하게 되고, 김응서는 투항은 하지만 끝내 조선에 대한 충절을 버리지 않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후금과의 전투에서 항복을 한 것처럼, 왜 정벌 역시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패 뒤, 다시 대사수의 한글본 『임진록』에서는 사명당의 왜왕 항복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는 강홍립·김응서와 같은 무신들에 의한 것이 아닌 승려에 의한 왜정벌 성공이라는 점에서 당시 민중의 울분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 Ⅴ. 결론

지금까지 김응서에 대한 기억들을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시기와 그 후에 대한 그의 기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의 기억들을 다시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시기 김응서에 대한 기억은 실록에서는 그의 활약과 패려함이 동시에 드러나고, 유성룡의 『징비록』에서는 그의 활약상이 미미하고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평양지역의 기록과 『임진록』에서는 그의 활약상이 뛰어나게 그려지고 있다.

실록에서 김응서를 기억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항왜유치라는 복잡한 상황속에서 김응서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징비록』에서는 이순신을 높이 기리기 위한 유성룡 개인의 집필의도에서 김응서가 폄하된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 평양지역의 기록에서는 평양 재지사족들의 지역적 욕망 때문에 김응서를 존숭했음을 볼 수 있었다. 김응서가 이렇게 존숭되었던 까닭은 1618년 후금과의 전투에서 김응서에 대한 기억이 충절과 비운의 장수로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후금에 포로로 잡혀 있던 김응서의 죽음은 초기실록 자료에서는 病死로 기록되었지만 적정을 탐지하다 죽은 죽음이 좀 더 강한 기억의 하나로 살아남아 평양의 재지사족들에 의해 점차 강화되어 기억되게 된다. 그

결과, 김응서는 영웅으로 기억되게 되고, 임진난을 기억하는 텍스트『임진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임진록』에서는 후금에 전투를 하러 갔다가 포로로 잡혔던 강홍립과 김응서가 왜를 정벌하러 떠난다. 전투의 무대가 요동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 강홍립과 김응서의 이미지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평양의 재지사족들에 의한 기억들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즉 문학적 텍스트에도 영향을 미쳐 임진록의 결말부에 강홍립과 김응서의 왜정벌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후금과의 전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왜정벌은 실패로 끝나고 김응서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듯 기억의 문제는 각 지역과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되기도 하며, 후대의 기억이 역전되어 전대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기억의 여러 모습들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기억의 문제는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어떻게 기억하며 다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 | 참고문헌 |


기본자료

유성룡, 『징비록』, 이재호 역, 역사의 아침, 2007.

이긍익, 『연려실기술』, 민족문화추진회, 1976.

논문

박노자, 「의기 논개 전승 - 전쟁, 도덕, 여성」, 『열상고전연구』 25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소재영, 「영웅전승의 문학적 형상화」, 『숭실어문』 2집, 숭실대국어국문학회, 1985.

이동월, 「계월향이야기와 죽음의 변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 16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8.

임철호, 「계월향이야기의 변이와 의미」, 『모악어문학』, 제1권,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6.

정지영, 「논개와 계월향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기 : 조선시대 의기의 탄생과 배제된 기억들, 『한국여성학』 23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7.

정지영, 「임진왜란과 '기생'의 기억」,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정출헌, 「임진왜란의 영웅을 기억하는 두 개의 방식」, 『한문학보』 21집, 우리학문학회, 2009.

정출헌, 「탄금대 전투에 대한 기억과 두 편의 <달천몽유록>」, 『고소설 연구』 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단행본

이장희, 『임진왜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99.

임철호, 『임진록 연구』, 정음사, 1986.

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최 관, 『일본과 임진왜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Abstract>

# Way of memory and the literary form for Kim, Yeng-seo

Kang, Chang-kyu

He plays an active i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Yo -dong battle. About he there are diversity memories. For 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he who has lead to surrender makes a contribution. About he there is many opinion in court. In Pyeng y ang recording that shows his best action he appears to kill enemy g eneral with Kye wal hang. And he appears to doesn't know about e nemy troops was escaped.

In 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and another his recor ding have different memory about him. He who fights with Hu-kum in Yu-dong for Myeng in Kuang-hae kun surrendered with Kang-h ong lip. After surrender according to record, he was death from dise ase or was killed for keep fidelity. But in recording was killed for k eep fidelity was more overemphasized. In this way, his recording aff ects Im jin ruk that memory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e conquers the savages as conquers Hu-kum in Sim-ha battle.

With Hu-kum battle expressed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 2, his fidelity's  image was kept and described. Overemphasized me mory affects to literary text makes memory more spread, stress and set in our memory. Different opinion and literary transformation of h e is affects another literary again. In aspects that memory of true, de scription of memory, memory literary text, It shows interesting eyes

Key Words :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memory, Kim, Yeng-seo, Kang, Hong-lip, Kye wal hang, Jing bi ruk, Im jin ruk

이 논문은 2012년 1월 30일에 투고되어 2012년 2월 15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2년 2월 20일 게재 확정되었음.